

# 청소년의 인성함양을 위한 고등학교 집체성년례 모형개발 연구

최 성 희(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전통문화콘텐츠전공 석사)  
주 영 애(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부교수)

## I.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사례(四禮)가 행해져 왔다. 그 중 관례(冠禮)는 사람의 일생 중에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의례로서 예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예기(禮記)』에서도 “관례는 예의 시작으로 효제충순(孝悌忠順)의 행실이 성립된 후에 사람다울 수 있고, 사람다운 이후에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sup>1)</sup>고 강조한다. 즉, 관례를 행하고 나서야 비로소 “성인으로서의 대우를 받게 된다.”<sup>2)</sup>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전통문화의 관례는 1895년 시행된 단발령으로 인해 상투가 사라지고 관(冠)으로 상징되던 관례의 외형적 형태와 그 의미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약 1940년대까지 양반가에서 행해지다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점차 그 의미와 절차가 소멸되었다(이정우·김연화·김경아, 2000).

전통적 관례가 사라진 이후 1961년 유교 측 인사로부터 관례의 필요성과 ‘성년례’라는 용어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김정화, 2010). 그것은 청소년들의 탈선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성년례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관례의 외형적 변화와 함께 현대의 성년례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성년례는 가정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회사 등 여러 단체에서 ‘집체성년례’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과 함께 물질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관례의 의미를 이해하기란 어렵게 되었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한다. 아울러 수능시험의 부담감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갖는 일부 학생들의 이탈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수능 이후 대학입학까지의 공백 기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성을 고양하기 위한 성년례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현재 성년례 대상이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의거하여 만 19세로 정해져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그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나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년례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고등학교 집체성년례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성년례가 정착되어 청소년들이 성인으로서의 기본자세와 인성을 갖추어 사

1) 『禮記』, 『冠義』, 禮之始也... 故孝悌忠順之行立, 而后可以爲人, 可以爲人而后可以治人也.

2) 『禮記』, 『冠義』, 成人而與爲禮也

회로 출발하도록 돕는데 일조하고자 하며, 전통 생활문화가 현대사회에 의미 있게 적용 발전되도록 함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 II. 성년례의 이론적 고찰

### 1. 성년례의 역사적 고찰

관·계례는 오랜 역사를 통해 계승되어 온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유산으로서 가정의례에서 첫 번째로 거치는 관문에 해당된다. 남자는 상투를 틀며 관을 씌워 ‘관례’라 하고 여자는 머리를 올려 쪽을 찌고 비녀를 꽂는다는 뜻으로 ‘계례’라 하였다. 관례(冠禮)가 기록된『예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삼국사기』신라본기 제8, 신문왕조(神文王條)<sup>3)</sup>의 기록으로 보아 신라 신문왕 6년(686년) 때 이다(신상구, 2010).

그러나 우리나라의 예(禮)는 예기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우리의 고유문화이다. 『후한서(後漢書)』 『동이열전(東夷列傳)』(국사편찬위원회, 1989)에 의하면 공자도 도덕과 윤리, 예절이 정립된 동이(東夷)에 살고 싶어 했다고 한다. 또한 ‘이른바 중국이 예를 잃으면 사이(四夷)에게서 구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예문화가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관례를 행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사(高麗史)』에 전해진다. 광종(光宗) 세가(世家) 2권에 “광종 16년 봄 2월 왕자 유(侁)에게 원복을 입혀 태자로 삼았다”<sup>4)</sup>는 기록이 있다. 광종 16년(965)에 왕자에게 원복례(元服禮)의 의식을 행하였고 예종, 의종 때에도 왕세자에게 관례를 행하였다 한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왕가와 사대부를 중심으로 관례가 이루어졌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나 『가례집람(家禮輯覽)』,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의 기록에서 관례의 여러 예들을 확인할 수 있다.

관례는 아이에서 어른으로 독립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어른으로서의 독립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머리에 관을 씌운다. 『사례편람』에서 관례의 경우 남자의 나이 15세에서 20세까지 혼인에 관계없이 모두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계례의 경우에는 여자의 나이 15세가 되면 시집가지 않더라도 이를 행하였고 혼인날짜가 정해졌을 때에는 혼인식 당일 식전에 행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최소 연령을 15세로 정하여 관례와 계례를 행함으로써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일깨우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근대화 이후 시대적·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의해 관례가 사라졌다가 1973년에 성년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주로 정부산하 기관이나 기업체 등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1980년대는 사회 저변에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년식이 만들어지고 성균관 청년유도회 주관으로 전통관례가 처음으로 재현되었고 이를 계기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례가 접목된 성년식이 거행되었다.

3)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八, 神文王條, 神文王立 諱政明 文武大王長子也… 六年二月… 遣使入唐 奏請禮記并文章 則天令所司 寫吉凶要禮

4) 『高麗史』2 光宗世家 十六年 春二月 加子侁元服立爲王太子

‘성년례’라는 명칭은 1986년 한국전례연구원의『월간실천예절』에서 언급된 이후 1997년에는 문화체육부에서 표준성년례를 발표하였고, 1999년 성년례가 법률로 정해졌다. 1999년 제정된 건전가정의례준칙 제 2조(정의)에서 ‘성년례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000년 들어서는 성년례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만 20세 생일을 맞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획하기도 하였고, 일부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성년례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기도 하였다. 2008년에는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 혼례, 상례, 제례, 수연례 등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성년례’가 정립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 2. 성년례와 인성함양

일반적으로 인성이란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본래적인 성품을 말한다. 그것을 과거의 성인들은 이름답고 고귀하다고 하였다. 인성의 도덕적 측면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고, 잘못을 행하면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런 인간의 성품이다. 사양하는 마음이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마음이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고유한 도덕적 본성이다<sup>5)</sup>(맹자집주, 1988).

이러한 도덕적 성품을 함양하는 것이 교육의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일찍이 칸트(I Kant)는 “교육이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고 하였다. 인간의 타고난 품성 또한 인간형성의 과정으로 교육되어진다. 인간은 삶의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되고 새롭게 형성되기 때문이다(조화태·김계현·전용오, 2006).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것이다. 결국 교육은 전인(全人)으로서의 인간을 기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전인교육은 인성교육이라 표현할 수 있다(정희태, 2011).

청소년의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경제력 향상과 핵가족화 등으로 가정의 인성교육은 소홀히 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인성의 현실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 교실에서는 집단 따돌림과 폭력이 난무하며, 욕설을 쓰지 않고서는 대화가 불가능한 것이 오늘날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은 더욱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학교의 교육이 모든 것이 입시를 중심으로 맞춰진 현장에서 ‘인성’을 외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 자체에서 인성교육이 어렵다면 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외부로부터 들여와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연구 주제인 성년례가 청소년들의 인성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되었다. 성년례의 의미인 책성인지례(責成人之禮)를 살펴보면 현대와 같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때일수록 성년 의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무런 생각 없이 주위의 친구들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뜻을 받아주지 않는다 해서

5) 孟子集註 公孫丑上 pp.87-89참조

부모나 형제에게 험하게 행동했던 모습은 곧 자기중심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성년례는 그런 자신을 성찰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사는 삶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그것은 곧 ‘어린아이’로 살아온 알에서 깨어나 새로운 생명, 즉 진정한 성인으로 탄생하는 생생한 삶의 현장이다.

이런 의식을 통해 자신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인성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의 일대 전환은 곧 죽어있던 인성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성인이란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주체이며, 따라서 자신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당당한 성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모색을 함께 하는 자리가 바로 성년례 마당이 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인성교육은 부모나 어른들의 가르침에서 이루어진다. 주영애(2010)는 성년례에 대해 부모가 지식을 갖고, 어떠한 내용의 성년 축하를 하느냐에 따라 그 교육적 효과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부모와 사회는 성년례를 통해 자신의 책무를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신상구(2010)의 연구에서는 신문왕의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제안하였다. 인생의 길은 혼자가 아닌 부모의 사랑을 이어받고 다음세대로 연결된다는 것을 문무왕[부] → 신문왕[자] → 효소왕[손]의 3대가 이어지는 길로 활용하였다. 이 길은 관례가 지니는 어른과 아이, 아들과 부모,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을 인지하는 기회가 되므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조화와 합일, 인본주의 사상이 내재되어 있는 길로 성인이 되기 전에 스스로의 정체성 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자아 → 상생 → 수양 → 세신 → 성인탄생이라는 성년례의 통과의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정우 · 김연화 · 김경아(2000)는 학교차원에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생활예절 교양과목의 실습의 한 행사로 이루어질 때 책임감 있는 성년자가 되도록 하는 선도책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인성교육에 대응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창의 · 인성 함양’을 위한 도덕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현대의 집체성년례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의 품성을 함양하는데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된다.

문제는 이러한 성년례가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소중한 전통이라 해도 오늘의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성년례 의식이 단순히 전통적인 행사의 복원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인성회복과 함양을 위한 집단적 축제로서의 새로운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3. 선행연구

성년례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문헌을 중심으로 한 관례연구와 새로운 성년례 모형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이밖에도 성년식의 교육적 의미, 성년례 활성화 방안, 성년례의 복식 등의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있다. 구체적인 연구주제와 연구자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성년례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주제	편수	연도	연구자
문헌을 중심으로 관례연구, 관례의 성격과 절차, 구조 의의 등에 대한 해석과 내용을 제시	6편	1987	박대순
		1989	김상보
		2002	이문주
		2006	강옥수
		2006	이은영
		2007	조창규
전통성년례의 현대적 적용의 어려움 파악, 새로운 성년례 모형 개발의 필요성 제안을 중심으로 연구	4편	1998	조희진·김정신
		2000	이정우·김연화·김경아
		2002	조희선·이혜자·이윤경
		2003	김순진
		2005	계선자·이정우·박미석·김연화
한국 성년식의 교육적 의미에 대해 연구	2편	2004	이동필
		2006	이승원
전통관례와 현대성년례 복식을 연구	1편	2008	김혜경
성년례의 문화콘텐츠 방안 연구 새로운 성년례 활성화 방안을 제시	2편	2009	김은희
		2010	신상구
가족행사로서의 성년례 정착을 위한 방안 연구	1편	2010	주영애
성년례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1편	2010	김정화
성년례의 조례의식에 관한 실태연구	1편	2011	김정화·최성희·이화진

이처럼 성년례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성년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현재 성년례의 대상은 대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점차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교육과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현대에 맞는 성년례가 정착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그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Ⅲ. 연구방법

#### 1. 조사 연구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집체성년례의 모형 개발을 위해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년례에 대한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고, 집체성년례 모형을 구성하여 시행을 한 후 참여만족 및 요구사항을 조사, 분석하였다(<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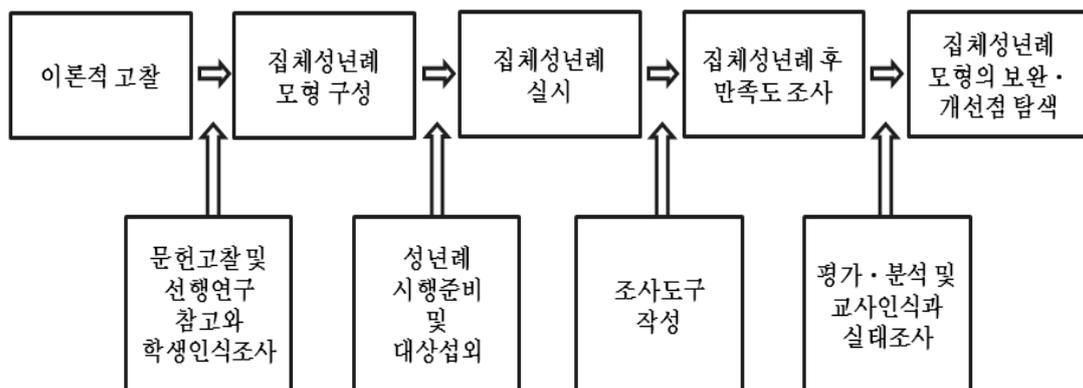
연구 내용에 따라 SPSS 17.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chi^2$ -test, ANOVA분석 등으로 전산처리하였다.

<표 2> 조사방법 및 대상

구분	조사 방법	대상	조사 기간	조사 내용
교사	전화면접	J시 소재 고교 교사 28명	2012년 4/9일~11일	고등학교 집체성년례 시행경험, 고등학교 집체성년례 필요성 공감, 향후 집체성 년례 시행 의사
		시행 한 고교 교사 10명	2012년 6/18일~19일	집체성년례 시행시기, 대상, 참석인원, 행사횟수, 향후 계속적 시행 여부
고등학생	설문조사	J시 소재 1학년 380명	2011년 5/4일~13일	성년례 인지, 성년례 교육과 성년례의 필요성, 참여 의사, 행사에 대한 요구사항
		J시 소재 3학년 200명	2011년 11/14일~18일	집체성년례 시행 후 참여 만족, 삶에 도움 정도, 행사에 대한 요구사항

## 2. 모형 개발

본 연구에서 적용된 고등학교 집체성년례 모형개발 순서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진행되었다.



<그림 1> 모형 개발 절차

#### IV. 고등학교 집체성년례 모형 개발

##### 1. 집체성년례 모형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인 고등학교 집체성년례의 모형을 구성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성년례의 원형인 관례·계례에 대한 문헌고찰 및 성년례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론적 토대와 고등학생들의 성년례에 대한 인식,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명시된 식순을 반영하여 집체성년례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집체성년례 시행의 대상은 J시에 소재한 D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360명이며, 행사의 일정은 수능 시험 후인 2011년 11월 14일-17일로 기획하였다. 집체성년례를 시행하기 전 4일간의 교육이 이루어진 후 11월 18일에 행사를 계획하고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집체성년례의 모형을 적용하여 시행하였다.

##### 1) 집체성년례 모형 진행 절차

모형적용에는 4일간의 사전교육과 당일 본행사로 계획하였다. 사전교육으로는 성년례 필요성(자아정체성고양교육), 성년례 이해(전통관례와 현대성년례의 교육), 사회생활에서의 예절과 성년례의식에 대한 예절교육, 국선도 교육을 계획하였고, 본 행사에는 1부 식전행사, 2부 본 행사, 3부 식후행사로 구성하였다. 진행절차는 <표 3>과 같다.

<표 3> 집체성년례 진행 절차

구 분	소요시간	진 행 절 차	비 고		
성년례 사전교육 (4일간)	50분	성년례 필요성 (자아정체성고양교육)	전체 교육		
	1시간	성년례 이해 (전통관례와 현대성년례의 교육)			
	1시간30분	사회생활에서의 예절과 성년례의식에 대한 예절교육	2개 모듈 편성하여 동시분할 교육		
	1시간30분	국선도			
	1시간30분	사회생활에서의 예절과 성년례의식에 대한 예절 재교육	2개 모듈 편성하여 동시분할 교육		
	1시간30분	국선도 재교육			
	4시간	전체 재교육 및 성년례행사 습의(習儀)	전체 교육		
성년례 행사 (당일)	1시간30분	국민의례			
		1부 식전 행사		내빈소개	
		국선도 시연		음악(거상악)	
		2부 본 행사		거례 선언	배경음악
		큰손님 모시기			

<표 3> 계속

구 분	소요시간	진 행 절 차	비 고	
성년례 행사 (당일)	1시간30분	성년자 다짐		
		고유례(告由禮)	배경음악	
		성년선언		
		성년례 필증 수여		
		술의 의식, 독약례(讀約禮)	배경음악 · 술상	
		큰손님 수훈		
		주인 인사 - 학교장		
		가족대표 인사		
		성년자 배례		
		예필 선언		
		영상메시지		
		3부 식후 행사	큰손님 퇴장	
			성년자 가족과의 시간	
설문조사	30분	행사 만족도 설문조사		

## V. 고등학교 집체성년례의 실태 및 인식 조사

### 1. 집체성년례의 실태와 교사들의 인식

#### 1) 집체성년례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집체성년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J시 지역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012년 4월 현재 J시에 소재한 고등학교는 총28개가 있었다. 조사대상 학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계가 22개로 78.6%, 전문계가 4개로 14.3%, 특수학교 및 자율학교가 각 1개로 3.6%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고등학교 교사의 직급 및 직책을 살펴보면, 교장이 1명으로 3%, 교감 15명으로 53.6%, 교사가 4명으로 14.3% 각 부장(교무, 교육, 연구, 학생 부장)이 8명으로 17.8%를 나타내어 과반수가 교감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이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의 전화면접 결과는 28개 학교 중 집체성년례가 시행된 학교는 1개교(3.6%)였으며, 6명(21.4%)의 대상자가 성년례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향후 집체성년례 행사를 할 계획이나 의향은 3명(10.7%)으로 전반적으로 관심 및 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인 고등학교 교사 28명의 전화면접의 결과를 요약하면, 성년례를 통한 전통문화나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대학입시교육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현실에서 입시와 관계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성년례의 대상이 대학생으로 인식되어 있어 고등학교 성년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우리가 8개 과목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한 학년에. 그러다보니까 단위수가 낮은 것들이라든가 입시와 관련이 좀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선택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제 과목도 윤리인데 1학년 때 안 돼 버리니까 좀... 이론은 굉장히 좋은건데, 현장에서는 보편은 적용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는 솔직히 사실이에요. 정말 좋은 거죠, 사실은 어른으로서의 책임의식도 자각할 수 있고, 독립된 개체로서 자아의식도 확고하게 세우고 이런 거 참 좋은 거예요. 좋게 보는데 현실이 좀 그래요.”(JI고의 연구부장 L교사).

반면에 집체성년례를 시행한 학교의 경우 교사는 학생들에게 입시교육 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학교 설립이념이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창조적으로 수용하여 예비사회인으로서 덕목과 품성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한 학교 설립 이념이 유명무실하다가 몇 년 전부터 적극적인 고민과 아울러 아이템을 연구했었고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 성년례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인성교육, 학교폭력예방, 효행, 봉사정신 등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모든 학교가 우리처럼 하기를 꿈꿔보고...그렇지 않을까요?”(DA학교 학생부장 L교사)

이를 미루어 볼 때 인성교육에 효과가 높은 성년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학교 측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2) 집체성년례의 시행 실태

본 연구를 위하여 현재 고등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집체성년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http://www.naver.com/>과 <http://www.daum.net/>에서 ‘고등학교 성년례’, ‘성년례’, ‘집체성년례’ 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았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전 D고등학교, 전주 D고등학교, 경기도 D고등학교, 서울 D여자고등학교, 인천 G고등학교, 안성 H고등학교, 목포 J고등학교, 홍천 M고등학교, 산청 S고등학교, 안산 S고등학교에서 성년례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과 전화면접을 실시하였다.

전화면접을 실시한 10개 학교 중 최근 2년간 집체성년례가 6개 학교에서 시행되었고, 행사대상은 8개 학교가 3학년을 중심으로 시행하였다. 집체 성년례를 시행 한 고등학교의 교사대상 전화면접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집체성년례를 시행 한 고등학교 교사 면접 결과

구 분	면담자직급 및 직책	면담자 성별	면담 내용
D고등학교 (대전)	인성 교육부장	남자	3학년을 대상으로 수능이 끝난 후 성년자 모두 한복을 갖추고 최근 몇 년간 계례를 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성과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으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D고등학교 (전주)	학생 부장	남자	우리학교 설립이념이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창조적으로 수용하여 예비사회인으로서의 덕목과 품성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데 핵심이 있다. 그러한 학교설립이념에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 성년례라는 답이 나왔다. 올해도 수능 후 성년례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D고등학교 (경기도)	국어 교사	남자	市の 요청으로 처음 해 보았다. 3학년의 남·여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 28명을 선발하여 전통 관·계례를 재현했다. 나머지 250명은 참관을 했다. 전통적 행사를 보여주는 것만도 좋은 것 같다. 성년례는 사회적 책임감도 갖게 해주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D여자고등학교 (서울)	교감	남자	수능 후 12월에 행사를 2번 시행했다. 이후 졸업식과 연관해서 7년이 되었다. 모두 한복차림이고 부모님께 4배를 드리는 절차와 부모나 지인, 본인이 堂號를 한문이나 한글로 지어 졸업앨범에 기록한다. 부모가 호에 대해 정성을 기울인다. 졸업식에는 입시에 지장이 없으며 며칠 전부터 연습을 한 후 행사를 시행하고 학생들이 많이 좋아 한다.
G고등학교 (인천)	국어 교사	여자	기관에서 복식을 준비하여 2010년과 2011년 수능 후에 행사를 했다. 3학년을 대상으로 실제 참석인원은 남·여 10명 정도로 전통식 관례, 계례를 재현하고 字도 내려주었다. 행사의 절차 등을 지켜보는 것도 신선했다.
H고등학교 (안성)	음악 교사	여자	새터민 자녀의 교육기관이다. 매년 성년의 날에 만20세를 기준하여 대체로 2학년과 3학년 학생 중에서 집체성년례를 시행하고 있다. 2012년 성년의 날에도 남·녀 21명이 한복 복장으로 시행했다. 북한에서 대부분 생일도 못 챙기던 아이들로 행사 후 눈물도 흘리고 감격스러워한다.
J고등학교 (목포)	수학 교사	남자	2008년에 학교에서 성년례행사를 1회 해 보았다. 성년식하면 자신에게 책임감을 줄 수 있어 집체성년례행사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M고등학교 (홍천)	담당 교사	여자	학교의 매년 정기 행사로 부모님이 참석하여 시행 하고 있다. 올해는 15기로 5월 19일에 시행한다.
S고등학교 (산청)	교무	남자	2009년에 인성시범학교로 1회 보았다. 학교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아도 군청에서 성년례 행사의 참여 요청이 있으면 학생을 기관으로 보낸다. 전통예절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본다.
S고등학교 (안산)	교사	여자	2010년에 12월에 1학년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실시했다. 학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기관으로 이동하여 실시한다.

교사와의 전화면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성년례 행사는 우리 전통문화의 의식으로서 인성교육적인 효과가 매우 높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조사대상 학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년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2. 집체성년례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

### 1) 성년례에 대한 인식

고등학생에게 성년례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J시 지역의 D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380명을 대상으로 성년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을 통하여 반응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배포된 380부의 설문지를 자기 기입식으로 작성하고 즉시 회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중 370부를 수거하였다. 회수된 370부의 설문 중에서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신뢰성이 부족해 보이는 설문지 29부를 제외하고 341부가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17.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성년례교육 후 성년례 의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62.2%, 성년례 교육의 필요성은 59.5%가 공감하였으며, 성년이 되면 성년례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50.1%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20.5%로 학교에서 단체로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해서는 긍정적 참여 의사를 보였다(<표 5> 참조).

<표 5> 교육 후 성년례에 대한 필요성과 참여의사 (N=341)

구 분	성년례 필요성		성년례 교육 필요성		구 분	참여의사	
	N	%	N	%		N	%
필요하다	212	62.2	203	59.5	예	171	50.1
그저 그렇다	104	30.5	107	31.4	잘 모르겠다	70	20.5
필요하지 않다	25	7.3	31	9.1	아니오	100	29.3

### 2) 집체성년례 시행 후 참여 만족

모형 적용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하여 집체성년례를 시행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J시에 소재한 D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 14일부터 17일 까지 성년례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4일간의 교육 후 11월 18일에 250명을 대상으로 집체성년례를 실시하고 11월 21일에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배포된 설문지 중 189부가 수거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신뢰성이 부족해 보이는 설문지 19부를 제외한 총 170부가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주로 성년례 참여 만족의 정도나, 성년례 행사 후 삶의 도움 정도에 대한 기초분석으로 빈도 및 기술통계량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J시에 위치한 한 학교의 고등학생으로 제한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 학생들이 시기적으로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직후이므로 입시 현황의 수시모집 면접 등으로 인해 5일간의 전체적 행사에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즉,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한 것이므로 표준화된 척도라고 볼 수 없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들이 집체성년례에 참여하면서 사전 교육 및 행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살펴보았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결과 성년례 사전 교육(3.24)보다는 행사(3.41)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식후 행사인 ‘영상 메시지(3.65)’가 1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큰절하기(3.65)’와 ‘술의 의식(3.65)’이 각각 2, 3위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집체 성년례의 참여 만족

(N=170)

성년례 참여 만족도		M	SD	순위	
사전 교육	큰손님 특강 (성년례 필요성-자아정체성고양)	3.19	1.068	3	
	성년례 교육	3.43	1.014	2	
	예절 교육	3.49	1.163	1	
	국선도	2.86	1.178	4	
	평균	3.24	.886		
성년례 행사	식전 행사	국선도 시연	2.95	1.116	8
		성년다짐	3.32	1.030	6
	본 행사	성년선언	3.34	1.032	5
		고유례	3.38	.985	4
		큰손님 수훈	3.29	1.085	7
		술의 의식	3.62	1.094	3
		큰절하기	3.62	1.130	2
		영상 메시지	3.65	1.132	1
	식후 행사	평균	3.41	.815	
	전 체	3.35	.792		

### 3) 성년례 후 삶에 대한 도움

성년례 후 삶에 대한 도움 정도에 대하여 전체 3.32의 평균을 나타냈으며,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가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 ‘성인이 됨에 있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가 3.29, ‘존재하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체험하는 경험이 되었다.’가 3.28로 나타났다. ‘나의 존재가 조상과의 연대감으로 이어 받았으며 미래로 지속됨을 인식하였다.’가 3.27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표 7> 참조).

<표 7> 성년례 후 삶에 대한 도움

(N=170)

성년례 후 삶에 대한 도움 정도	M	SD	순위
1. 성인이 됨에 있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29	1.108	2
2. 존재하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체험하는 경험이 되었다.	3.28	1.062	3
3.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3.44	1.026	1
4. 나의 존재가 조상과의 연대감으로 이어 받았으며 미래로 지속됨을 인식하였다.	3.27	1.053	4
전 체	3.32	.913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교 졸업 전 학생들에게 성인이 되기 전에 갖추어야 하는 덕목에 대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집체성년례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의 실행을 통하여 성년례 정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년례 인식조사와, 성년례를 시행한 후의 참여 만족에 대한 조사 두 단계로 실시되었다.

첫 단계인 고등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년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년례를 행한 학교의 교사들이 성년례를 행하지 않은 학교의 교사들보다 전통문화나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그러나 성년례를 실시하지 않은 학교의 교사들은 대학입시교육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현실의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성년례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는 의견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 학생들은 성년례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에 성년례교육 필요성에 대해 59.5%, 성년례의식의 필요성에는 62.2%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고등학생들의 집체성년례 모형을 구성하여 시행한 후에 이에 대한 참여 만족 조사 결과를 보면, ‘영상메시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큰절하기, 술의 의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고등학교 집체성년례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성년례 의식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모와 교사는 청소년들이 경건하고 신성하게 성년례의식에 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행하고 의식을 준비해야 한다. 청소년기는 가정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인생의 전환기로서 정체성의 확립이 요구되는 때이며, 이럴 때일수록 어른의 가르침과 교훈 속에서 경건한 성년례 의식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집체성년례의 필요성과 의미를 살리기 위해 부모가 함께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참석은 성년자로 하여금 주인공임을 인식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여, 집체성년례에서의 개인적인 의미의 상실과 관련된 단점을 보완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성년례 의식 때 부모가 성년자들에게 호를 작명하여 줌으로써 성년례 의미를 더욱 고취시키는 것이다. 성년자들은 號를 받음으로서 어른이 되었음을 자각하게 되며 스스로도 그 몸가짐을 삼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성년례 의식 중에 ‘부모님께 올리는 글’을 넣음으로써 보은의 禮를 갖추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모님에 대한 보은의 마음을 새겨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글의 내용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포함시키면, 성년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다섯째,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년자는 한복을 입고 성년례를 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 확립을 일깨우며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이다.

여섯째, 성년선언에 대한 ‘성년례 필증’을 격식 있게 갖추어 보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성년례 의미를 새길 뿐만 아니라 정신적 성인의 출발점을 알리는 지표가 될 것이다.

일곱째, 집체성년례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집체성년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의 집체성년례가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 고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된 집체성년례를 시행한 후 참여 만족도와 개선점을 보완하여 수정

된 집체성년례 모형을 제시한다. 보완·수정된 절차로는 1부 국민의례- 내빈소개, 2부 거례선언- 큰손님모시기- 성년자 다짐- 고유례- 성년선언- 성년례 필증 수여- 초례(醮禮)- 독약례(讀約禮)- 호부여하기- 부모님께 올리는 글- 큰손님 수훈- 주인 인사(학교장)- 가족대표 인사- 성년자 배례- 예필선언, 3부 영상메시지- 큰손님과 주인 퇴장- 성년자 가족과의 만남- 기념사진 촬영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집체성년례 모형이 집체성년례의 정착과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보다 바람직한 집체성년례의 실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집체성년례는 많은 인원이 동시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칫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집중되고 전체적으로 산만하고 어수선히지기 쉽다. 이를 극복하고 학생들이 모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성년례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위해서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아울러 고등학교 교사들이 집체성년례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고려사』

『사례편람』

국사편찬위원회(1986). 中國正史 朝鮮傳. 서울:천풍인쇄주식회사.

권오돈역해(2009). 禮記. 서울:홍신문화사.

김득중(1986). 월간실천예절. 제16집. 서울:한국전례연구원.

김혁제(1988). 孟子集註. 서울:명문당

이상옥 역저(1991). 禮記. 서울:집문당.

조화태 · 김계현 · 전용오(2006). 인간과 교육.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강옥수(2006). 조선시대 의례서에 나타난 관 · 계례 연구.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계선자 · 이정우 · 박미석 · 김연화(2005). 성년례 프로그램 모형개발 및 성년례 참여자 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76.

김순진(2003). 성년례의 활성화를 위한 모형개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희(2009). 성년례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신 · 조희진(1999). 집단 성년례의 바람직한 모형. 경원전문대학논문집, 21, 405-423.

김정화(2010). 성년례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1960년 이후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13(2), 29-54.

김정화 · 최성희 · 이화진(2011). 성년례의 초례의식에 관한 실태연구. 생활문화연구, 25(2), 63-81.

김혜경(2008). 전통관례와 현대 성년례 복식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대순(1987). 조선시대 관례의 사적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동필(2004). 마산시 고교생들의 예절 및 관혼상제 인식에 대한 조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상구(2010). 옛길을 활용한 성년례의 활성화 방안 연구-신문왕로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32,

69-99.

이길표 · 최배영(2001). 가정의례준칙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 비교분석. 생활문화연구, 15(1), 167-185.

이문주(2002). 성인식으로서의 관례의 구조와 의미분석. 유교사상연구, 17, 25-50.

이승원(2006). 한국 성인식의 교육적 의미. 진리논단, 13, 257-274.

이은영(2006). 祝辭와 字說을 통해 본 관례 -17세기 양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9(2), 67-98.

이정우 · 김연화 · 김경아(2000). 성년례시연을 통해 본 성년례 모델 개발의 탐색적 연구 -참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4(1), 13-128.

정희태(2011). 학교폭력 예방과 갈등해결방안 :인성 교육적 접근. 한국윤리학회, 83(0), 123-162.

조창규(2007). 유가 관례의 문화해석. 동양한문학, 27, 415-440.

조희선 · 이해자 · 이윤정(2002). 성인식의 정착을 위한 탐색적 연구 -대학생의 필요성 인지를 중심으로-. 생활과학, 5, 255-268.

조희진 · 김정신(1998). 집단 성년례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5, 141-172.

주영애(2010). 가족행사로서의 성년례 정착을 위한 방안 연구-어머니들의 성년례에 대한 인식과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1-20.

<http://100.naver.com>

<http://www.law.go.kr>

<http://media.daum.net/society>

<http://www.kgnews.co.kr/news>



# 청소년의 인성함양을 위한 고등학교 집체성년례 모형개발 연구

조 희 선(성균관대학교 교수)

먼저 본 연구는 오늘날 급격한 사회적, 가족적 변화로 인하여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확립과 인성 함양 등을 위한 지지체계가 부족한 현실을 인식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학교에서 집단으로 성년례(집체성년례)를 실시함으로써 일부 증진하고자 한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나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본 연구를 통하여 집체성년례의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년례가 인성함양, 효의식, 전통문화인식 등에 도움이 됨을 전제로, 성년례 모형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연구자의 궁금증(행사에 대한 평가) 해소를 위한 몇 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을 중심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성년례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성급한 접근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의도는 매우 소중하나, 연구로서 논문으로 풀어내려면 연구를 통해 끌어내고자 하는 논지가 분명하고, 그에 따른 연구방법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의 내용에 의문을 갖습니다.

1. 연구목적이 불분명하므로 논문의 제목과 내용의 연계에 혼선이 있습니다. 즉 연구의 목적이 ‘성년례 교육인지, 성년례 만족도 파악인지?’ ‘집체성년례 모형개발인지, 만족도 조사인지, 인성함양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중심 key word중심으로 검증되어야겠습니다. 예로 인성함양 여부를 알기 위해 ‘참여만족도와 삶에 대한 도움’이라는 설문만으로 그 값이 평균값 이상이라고 하여 결론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만족도 조사가 목적이라면 제목변경이 요망됩니다. “집체성년례 시행에 따른 만족도 연구(가칭)” 집체성년례는 고등학생만이 아니라 대학생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인성 함양을 위한...’이라는 제목도 무리가 있습니다. 과연 본 연구에서 성년례를 전후하여 측정한

- 결과 분석을 근거로 인성함양이 검증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제목 변경이 요망됩니다.
2. 연구의 분석방법에 대한 기술의 오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 순위일 뿐 교차분석과 일원변량분석은 본 내용에 없습니다.
  3. 연구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문헌고찰과 실태 및 요구도 조사(필요성)를 근거로 모형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수정 보완해야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개발과정(그림1)과 실제 분문의 구성이 다릅니다. 수정을 요합니다.
  4. 모형개발 즉 <표 3>집체성년례 진행 절차에 대한 의문입니다.
 

집체성년례 모형인 진행절차(순서와 내용 포함)에 대한 근거배경 및 과정이 지적되어야겠습니다. 절차와 내용과 의미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에서 서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천사 중심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전통례와 현대식의 예를 어떤 근거로 접목했는지? 와 제시된 순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국선도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고유례 위치의 적절성 및 배경이 요망되며, 성년다짐은 순서가 뒤로 가야겠습니다. 필증 수여는 마지막 순서 아닐까요? 따라서 모형개발(성년례 순서)이 재고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참여 만족도 조사순서는 행사순서와 일치해야겠습니다.
  5. V. ...실태 및 인식 조사의 구성 의 재고를 요합니다.
 

대상(교사, 학생) 중심으로의 분류보다는 실태와 인식으로 분류하는 편이 연구의 체계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결론 및 제언에서 부분적으로 무리가 보입니다.
    - 전통관례에서는 ‘호’가 아니라 ‘자’를 내려줍니다. 본디 전통관례에서는 ‘자 관자례’라 하여 ‘자’를 내려주어, 의식을 행한 이후로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를 부릅니다.
    - ‘부모님의 참석’ ‘부모님께 올리는 글’의 삽입 제안, ‘성년례 필증’ 등은 연구에서 제언으로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절차 내용에 포함되어 모형이 개발되고 실시되었어야 맞습니다.
    - 제언에서 세가지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했는데, 각 내용의 의미 전달을 보완하여야겠습니다. 각각 프로그램의 필요성 여부를 포함하여...
    - 정리하면 본 논문은 제목과 내용 및 연구방법에서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며, 더불어 문장의 전후맥락 및 단락 연결을 보완하면 정리가 잘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끝으로 본 연구가 이론적 고찰을 기반으로 연구방법 등에 무리 없이 잘 정비되어 집체성년례 모형이 개발되고, 연구자가 희망하는 바대로 많이 시행되어 청소년의 인성함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